

# 한국출판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춘 중앙대 교수 산학협력의 강화가 학회의 최우선 과제

“출판계처럼 산학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곳도 드뭅니다. 임기 동안 출판계와 학회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학회 내에 ‘산학협력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출판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춘(65) 중앙대 교수는 학회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에게 “산학협력의 강화”를 꼽았다. 한국언론학회 회장,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 서울문화재단 이사 등을 거치며 평소 출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교수인지라 학회가 신임회장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하다.

1969년 발족된 한국출판학회는 출판학 분야의 교수, 연구자와 출판 현장의 전문가들로 조직된 연구 공동체이다. 매년 다양한 출판 관련 세미나를 통해 한국출판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출판계가 당면한 현실 문제와는 유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할 학계와 출판계가 서로 소원하다보니 정부의 출판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못했고, 그것이 다시 학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학회와 출판계의 협업은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쌓이는 성과가 모여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산업의 질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출판산업’ 정책은 있는데 ‘출판문화’ 정책은 없습니다. 출판산업은 문화산업입니다. 파주출판도시 같은 산업적 정책 외에도 보다 문화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각 대학의 출판학과 부활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출판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출판계와 학계의 인재들을 활용한다면 출판전문가와 편집인을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오는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개최될 출판학회의 세미나가 임기를 여는 산학협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될 이번 세미나를 학회의 연구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업계와 학계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하겠지만 출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출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학회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